



중국리포트

KMI CHINA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国上海市 长宁区 遵义路 100号 南丰城 A-1803
 Tel. +86-21-6090-0395~6, Fax. +86-21-6090-0397

제20-10호
 2020년 6월 15일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9년 중국 운송수단별 화물운송량
- ▶ 이슈 포커스 : 2020년 특별한 '양회'의 눈길가는 해양수산 이슈들
- ▶ 동향 & 뉴스

■ 중국 운송수단 별 화물운송량 추이 (억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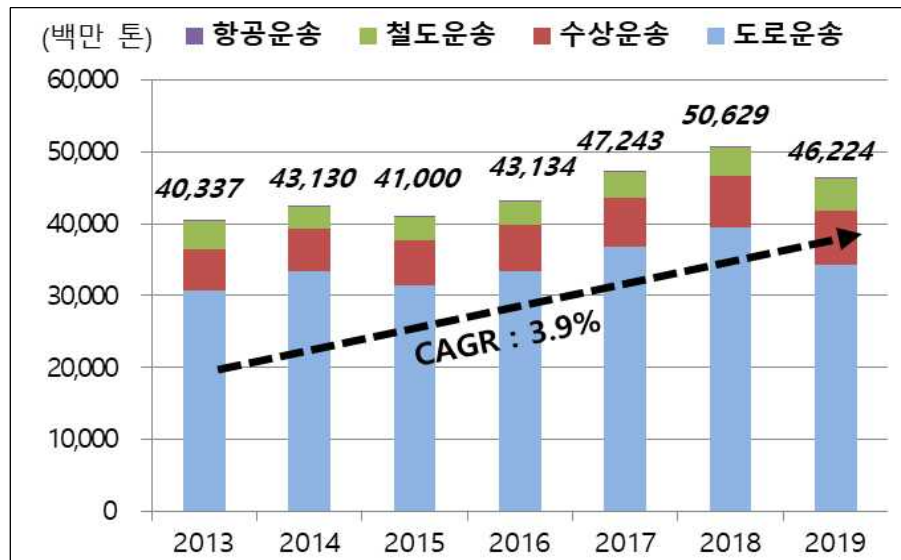
연도	도로	수운	철도	항공
2019	343.6	74.7	43.9	0.08
2018	395.7	70.3	40.3	0.07
2017	368.7	66.8	36.9	0.07
2016	334.1	63.8	33.3	0.07
2015	315.0	61.4	33.6	0.06
2014	333.3	59.8	30.7	0.06
2013	307.7	56.0	39.6	0.06

자료 : 교통운수부.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원을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KMI All Rights Reserved.

통계로 보는 중국 : 2019년 중국 운송수단별 화물운송량



자료 : 중국 교통운수부, 「2013~2019년 교통운수업 발전통계공보」를 바탕으로 KMI 작성.

2019년, 화물운송량 전년대비 감소, 교통운수 분야 투자는 증가

2019년 중국의 화물운송량은 전년대비 8.7% 감소한 462억 2,400만 톤을 기록했으며¹⁾, 2013~2019년간 중국 화물운송량의 연평균증가율(CAGR)은 3.9%를 나타냈다. 2019년 각 운송수단별로는 도로운송이 전체 화물운송량의 74.8%인 343억 5,500만 톤을 기록했으며, 전년대비 13.2% 감소했다. 수운의 경우, 전년 대비 6.3% 증가한 74억 7,200만 톤이었으며, 내하 운송이 39억 1,300만 톤, 연해 운송이 27억 2,700만 톤, 원양 운송이 8억 3,200만 톤을 기록했다. 철도 운송량은 43억 8,900만 톤으로 전년대비 9% 증가해 각 운송수단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항공 화물운송량은 753.2만 톤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도로운송이 전체 화물운송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전년대비 3.8%p 감소)은 줄어드는 추세이며, 철도(전년대비 1.5%p 증가)와 수운(2.4%p 증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중국 교통운수 분야의 고정자산 투자는 3조 2,45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19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올해 교통운수 분야의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 중국 교통운수부와 국가통계국의 2019년 화물운송량 수치는 2018년에 비해 감소한 수치지만, 「2019년 교통운수업 발전통계공보」에는 2019년 화물운송량이 증가했다고 표기되어 있음, 필자 주.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9년 중국 운송수단별 화물운송량
- ▶ 이슈 포커스 : 2020년 특별한 '양회'의 눈길가는 해양수산 이슈들
- ▶ 동향 & 뉴스

지수 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구분	01-03	06-12
종합지수	897.53	839.19
일본 항로	731.59	729.82
구주 항로	1,069.06	1,015.22
미서부 항로	681.52	741.40
미동부 항로	884.09	912.18
한국 항로	602.18	671.69

주 : '01-03'은 2020년 1월 3일 지수.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구분	01-03	06-12
종합지수	1,121.76	1,019.94
석탄	1,038.96	991.48
곡물	933.03	788.88
금속광석	1,069.81	1,003.75
정유	1,925.55	1,711.10
원유	1,557.48	1,557.48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이슈 포커스 : 2020년 특별한 '양회'의 눈길 가는 해양수산 이슈들

‘양회(两会)’²⁾는 한 해의 국정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이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의 ‘양회’는 어느 때와 차이점을 보였다. 당초 3월 5일 개최 계획보다 두 달 이상 연기된 5월 21일 개막되었으며, 계획보다 4일 단축된 5월 28일 폐막되었다. 또한, 국무원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에는 이례적으로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정부 업무보고」도 과거에 대비해 짧았다³⁾. 하지만, ‘특수한’ 시기에 개최된 ‘특별한’ 양회에서도 해양수산과 관련한 많은 이슈들이 쏟아졌는데, 특히 교통운수 관련 건의(建议) 안건은 총 235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해운·항만·물류분야의 논의들이 다양했다⁴⁾. 금번 ‘이슈 포커스’에서는 2020년 ‘양회’에서 발표된 국무원의 「정부 업무보고」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에서 나온 주요 논의들을 중심으로 올 한해 중국 해양수산 이슈 및 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1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 미제시

올해 ‘양회’가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개최된 만큼, 지난 5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된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전체의 10% 이상의 분량을 코로나19의 방역과 성과 등에 대해 할애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사슬의 단절, 경제 상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중국의 향후 경제 상황 예측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경제성장률에 대한 언급을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하며 경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양회’에서 비록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는 제시하지 못했지만, 기타 세부 목표치들은 제시했다. 「정부 업무보고」는 도시 신규 취업자 수 900만 명 이상,登記실업률 5.5% 수준으로 제시하며 고용 안정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재정 적자율을 3.6% 이상으로 설정했고, 재정 적자규모를 작년보다 1조 위안 증가시키겠다고 하며 재정책대를 통해 경기부양 의지를 피력했다. 기업지원도 강조했다. 올해 5천억 위안의 세수절감을 포함하여 기업들의 각 종 비용들을 2.5조 위안 경감시키겠다고 발표했다.

2) ‘양회(两会)’란 중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 최고의 정책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통칭하는 용어로써 중국 경제·사회의 발전 방향, 정부 예산, 경제성장률 및 각 분야의 정책들을 제시·결정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임. 필자 주.

3) 「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올해를 포함하여 단 4차례에 불과하며, 올해 「정부 업무보고」 역시 개혁개방 이후 가장 짧은 보고로 기록됨.

4) ‘양회’에서는 ‘의안(议案)’과 ‘제안(提案)’, ‘건의(建议)’ 등의 안건을 발의하는데, ‘의안’은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들이 발의하는 안건, ‘제안’은 정치협상회의의 위원들이 발의하는 안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단독으로 건의(의견, 비판)를 발의할 수 있음. ‘의안’은 통과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제안’이나 ‘건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관련된 부처·기관에서 이에 대해 환류를 진행함, 필자 주.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9년 중국 운송수단별 화물운송량
- ▶ 이슈 포커스 : 2020년 특별한 '양회'의 눈길가는 해양수산 이슈들
- ▶ 동향 & 뉴스

- 「정부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6대 보장'과 '6대 안정'
 - 6대 보장(六保): ① 취업, ② 민생, ③ 시장 주체, ④ 식량·에너지안보, ⑤ 산업과 공급사슬, ⑥ 기초 행정조직의 정책이행 보장
 - 6대 안정(六穩): ① 취업, ② 금융, ③ 대외무역, ④ 외자, ⑤ 투자, ⑥ 경제예측 안정

[표 1] 「정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2020년 중국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GDP 증가율(%)	약 6.5	6.9	약 6.5	6.6	6.0-6.5	6.1	미제시
CPI 증가율(%)	약 3.0	1.6	약 3.0	2.1	약 3%	2.9	3.5%
도시 신규 취업자(만 명)	1,100 ↑	1,351	1,100 ↑	1,361	1,100 ↑	1,352	900 ↑
도시 등록 실업률(%)	4.5 ↑	3.9	4.5 ↑	3.8	4.5 ↓	3.6	5.5 ↓
재정 적자규모(조 위안)	2.38	3.76	2.38	2.38	2.76	2.76	3.76 ↑
철도 투자(억 위안)	8,000	8,010	7,320	7,920	8,000	8,029	8,000*
도로·수운 투자(억 위안)	18,000	22,700	18,000	23,000	18,000	23,185	18,000**

주 : 2020년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철도(*)와 도로·수운(**) 투자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상기 수치는 2019년 12월에 개최된 '전국교통운수공작회의(全国交通运输工作会议)'에서 제시된 목표치임.

자료 : 중국 국무원, 「2017~2020년 정부 업무보고」, 각 연호 및 관련 통계자료.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형 인프라건설(新型基础设施)'이란 용어가 최초로 언급되었으며⁵⁾, 올해 공공투자 확대의 중점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0년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는데, 이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영향들을 도출해 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정부 업무보고」의 2020년 주요 추진 과제 중 해양·수산·물류 분야의 영향 분석

주요 임무	관련 영향 분석
거시정책 강화를 통한 기업 안정 및 고용 보장	- 교통운수분야의 부가가치세 감면, 항만건설비 면제 조치 연말까지 연장으로 물류원가 절감 - 기타 각종 세수감면 및 기업지원 조치로 인한 해양수산 관련 분야 기업들의 부담 경감
시장주체 활력 제고 및 신성장 동력 확대	- 해양수산 분야의 행정 수속 효율화 및 전자화(비대면화) 촉진 및 해양수산 분야의 전반적인 디지털화 강화 - 온라인 쇼룸 등 신형 업태들의 지원역량 강화로 인해 택배 등 물류형태 다변화 및 발달
내수확대 및 경제 발전방식 전환	- 해양수산 관련 분야의 인프라, 특히 '신형 인프라' 구축 촉진(스마트양식, 스마트항만 등) - 각 지역발전 전략에 따른 연해지역의 해양경제 발전 및 주요 수역, 해양 환경생태 보호 강화
빈곤 퇴치 및 농업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	- 수산양식 발전 촉진 및 어민소득 증대 관련 조치 확대 - 어촌 인프라 개선, 어업 고도화, 도·농 배송시스템 개선 및 농산물 콜드체인물류 촉진 예상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과 무역·외자기반 안정화	- 하이난의 자유무역항 건설 촉진 및 추가 자유무역시범구 증설 예상, '특별경제구역'에서의 해양수산 분야 제도 개선과 외자 개방 촉진 - 국제 화물운송력 제고를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해운·항공편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대체 운송능력 확보 및 중·유럽 정기화물열차(블록트레인) 운송의 활성화가 예상
민생 개선 및 사회사업 개혁 추진	- 공항만의 인력 관련 방역가이드에 대한 연구 심화, 방역지침 변화 가능성 존재 - 각 종 해양재해에 대한 대응시스템 강화 기대

자료 : 중국 국무원, 「2017~2020년 정부 업무보고」, 각 연호 및 관련 통계자료

5) '신형 인프라'는 2018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며 과학기술의 혁신을 활용하는 인프라로 5G,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인터넷, 고속철도와 도시철도, 초고압(UHV), 전기차 충전소 등 7대 분야, 박재곤, "2020년 중국의 신형 인프라 투자", 산업연구원 「중국산업경제브리프」 통권 70호, 2020.4.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9년 중국 운송수단별 화물운송량
- ▶ 이슈 포커스 : 2020년 특별한 '양회'의 눈길가는 해양수산 이슈들
- ▶ 동향 & 뉴스
- 전인대 대표, 쉬쥔웨이(徐珏慧)



“외국적 외항 선박이 양산항을 환적항으로 이용시 컨테이너화물의 ‘샤오파이’ 업무 개방이 필요함. 또한 각 지역 세관의 정책 해석이 상이하고, 현행 수출세 환급방식이 중국내 컨테이너 화물을 부산 등 외국에서 환적하게 만든다며 이러한 제도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사진 출처 : <http://news.eastday.com/c/2019qqlh/u1ai12315016.html>)

- 전인대 대표, 쉬전차오(许振超)



“국제해운조례 개정을 통하여 외국적 선박들에 대하여 “샤오파이” 환적운송 개방을 연구해야 하고, 또한 대외무역 컨테이너 환적물량의 ‘국내구간 운송’이 국제간 해운 운송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함”

(사진 출처 : <http://news.qq.com/shandongshandonggedi/20190306/4209475.shtml>)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해양수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어휘 사용은 적은 편이었다. ‘해양(海洋)’ 1회, ‘항만(港口)’ 1회, ‘수산(水产)’ 1회가 언급되었으며, 하이난다오의 ‘자유무역항(自由貿易港)’ 건설 등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었다⁶⁾. 하지만, ‘양회’ 기간 중에는 해양수산 관련한 많은 이슈들이 논의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양회’의 해운·항만·물류 관련 주요 내용

1) 일부 구간 ‘연해운송(샤오파이 업무)’ 개방 촉진 전망

2019년 8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린강신구역(临港新片区)’이 설립되면서 “중국 자본 편의치적선의 연해 ‘샤오파이(捎帶, 외항선에 내수화물 운송)’ 정책 실시 효과를 확대하고, 동등한 원칙에서 외국적 외항선박이 양산항을 국제 환적항으로 한 경우,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샤오파이’ 업무 허용 여부를 연구하겠다”고 제시함으로써 ‘샤오파이’ 업무 개방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⁷⁾. 이에 따라, 올해 ‘양회’에서도 ‘샤오파이’ 업무 개방이 해운·항만분야의 주요 이슈였다.

전인대 대표 상하이항국제여객운송센터 쉬쥔웨이(徐珏慧) 총경리는 외국적 외항 선박이 양산항을 환적항으로 이용시 컨테이너화물의 ‘샤오파이’ 업무 개방을 건의했다. 쉬쥔웨이 대표는 ‘샤오파이’ 업무 개방은 물류비 절감⁸⁾과 함께 부산항 환적 수출입 컨테이너를 기수(基数)로 계산 시, 상하이항 ‘샤오파이’ 업무 수요는 100만 TEU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각 지역 세관의 정책 해석이 상이하고, 현행 수출세 환급방식이 중국내 컨테이너 화물을 ‘부산’ 등 외국에서 환적하게 만든다며 이러한 제도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⁹⁾. 쉬쥔웨이 대표의 건의에 대해 담당부처인 교통운수부 수운국은 현재 상하이 양산항의 ‘샤오파이’ 업무개방을 고도로 검토하고 있고 연구도 현재 완료단계에 이르렀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인대 대표 칭다오첸완컨테이너터미널의 쉬전차오(许振超) 고급경리 역시 중국 항만들이 이미 세계의 허브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환적컨테이너의 비중은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국제해운조례」 개정을 통한 “샤오파이” 업

6) ‘해양’은 올해 임무 중의 지역발전 촉진 전략의 일환으로 ‘해양경제 발전’에서 언급되었고, ‘항만’은 기업부담 경감의 ‘항만건설비 면제’와 관련하여 언급되었으며, ‘수산’은 올해 임무 중 농업생산 안정의 일환으로 ‘수산양식 발전’이 언급됨, 국무원, 「2020년 정부 업무보고」.

7) 연해 ‘샤오파이(捎帶)’ 업무는 외국적 선박이 국제운송 과정 중에서 특정 국가 항만에서 환적을 할 시에 해당국의 국내 항만간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칭하며, 일종의 카보타지(cabotage) 개방에 해당되지만, 완전한 연해운송 개방이라 보이는 어려운 바 ‘샤오파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KMI,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1]”, 「KMI 중국리포트」 제19-20호.

8) 쥔웨이 대표에 따르면, 아시아~유럽 항로에 11척(2만 TEU급 선박 기준)의 선박이 투입될 시, 이 물류원가를 만약 3,000개의 ‘샤오파이’ 업무에 분배시킨다면, 각 컨테이너의 물류원가를 180달러는 절감시킬 수 있으며, 연해 샤오파이 컨테이너 운송원가를 100달러로 가정할 시, 매 컨테이너당 물류원가 80달러를 절감할 수 있음

9) 港口圈, “全国人大代表徐珏慧：建议以洋山港为中转港开放外籍船沿海捎带”, 2020.5.28.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9년 중국 운송수단별 화물운송량
- ▶ 이슈 포커스 : 2020년 특별한 '양회'의 눈길가는 해양수산 이슈들
- ▶ 동향 & 뉴스

■ 전인대 대표, 쉬리룽(许立荣)



“공급사슬에 대한 디지털화가 부단히 심화될 것임. 온라인 오피스, 전자상거래, 빅 데이터 물류 등 기술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함”

(사진 출처 : https://www.sohu.com/a/199920807_391463)

■ 전인대 대표, 왕아이허(王爱和)



“장시성-광둥성 운하 건설 계획은 장시성 경내 758km, 광둥성 경내 470km에 이르며, 운하가 완공되면 중국 중부지역과 ‘징진지’, 창장삼각주, ‘웨이강아오대만구’ 지역을 수운으로 연계 가능”

(사진 출처 : http://ah.ifeng.com/a/20170216/5393400_0.shtml)

무 개방을 주장했으며, 수출입 컨테이너 환적물량의 ‘국내구간 운송’이 국제 해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¹⁰⁾.

2) 해운물류업의 디지털 혁신 강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사슬 충격 속에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해운업의 디지털 혁신 업그레이드 방안도 활발히 논의되었다. 먼저, 전인대 대표 겸 COSCO SHIPPING그룹 회장인 쉬리룽(许立荣) 대표는 온라인 오피스, 전자상거래, 빅 데이터 물류 등 기술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으며, 앞으로 디지털화는 해운·물류업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업종에 대한 침투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해운업 역시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¹⁾.

또한 전인대 대표인 전화(传化)그룹 쉬관쥔(徐冠巨) 회장은 스마트물류 플랫폼 역시 ‘신형 인프라 건설’에 넣어야 한다고 건의하며, 스마트물류 서비스 플랫폼은 5G,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AI 등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들에게 상호협력, 고효율, 원가절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¹²⁾, 중국의 소수 정당인 중국민주동맹(中国民主同盟)은 스마트교통 건설을 통한 교통효율 제고를 위해 전문화된 인재를 육성해야 하며 5G, 무인차량, AI 등 핵심기술의 응용 촉진, 스마트 교통정보서비스 수준 제고, 교통 관련 산업의 산업표준 제정·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¹³⁾.

3)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운물류 발전, 전국 연계 대운하 건설의견 제시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 발전’, ‘웨이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로 이어지는 광역도시권) 건설’, ‘창장삼각주 일체화 발전’ 등을 깊이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 항만의 통합, 지역 내, 지역 간의 교통체계 개선도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인대 쉬쥔취(徐珏慧) 대표는 창장삼각주 항만군의 화물 집하·운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창장삼각주 각 성의 발전계획들을 서로 연계하여 항로조건 개선하고, 더욱 경쟁력 있는 창장-해양(河海) 직통 출구를 구축하자고 건의했으며¹⁴⁾, 전인대 대표인 중국창장항운그룹의 장루이(张锐) 회장은 선박 대형화 및 트래픽 증가로 인해 현재 창장하구의 적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현행 실시되고 있는 선박간 교차운행 규정을 완화하고, 창장하구 심수항로 효율화 제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¹⁵⁾.

또한, 전인대 대표인 장시성(江西省) 교통운수청 왕아이허(王爱和) 청장은

10) 港口圈, “全国人大代表许振超建议: 放开外贸集装箱沿海捎带政策”, 2020.5.26.

11) 中国水运报, “许立荣: 把握数字化发展趋势 推动航运业数字化转型升级”, 2020.5.27.

12) 中国新闻网, “人大代表徐冠巨: 智能物流服务平台不应缺席新基建”, 2020.5.27.

13) 中国水运网, “民盟中央: 加快智慧交通建设 提升交通运输效率”, 2020.5.25.

14) 新浪财经, “徐珏慧代表: 加快发展内河集装箱运输”, 2020.5.26.

15) 中国水运报, “全国人大代表张锐: 提升长江口深水航道通航效率”, 2020.5.26.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9년 중국 운송수단별 화물운송량
- ▶ 이슈 포커스 : 2020년 특별한 '양회'의 눈길가는 해양수산 이슈들
- ▶ 동향 & 뉴스

■ '홍콩 보안법(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법 및 집행기제 제정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결정)'의 주요 내용(7개 조항)

1. 홍콩 내 중국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제지, 처벌
2. 외국과 국외세력의 홍콩 분열, 전복, 침투 파괴하는 활동을 예방 저지
3.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안보 유지 관련 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
4. 중앙정부 국가안보 수호 유관 기관 필요시 홍콩특별행정구에 설치하여 직무수행
5. 국가안보위해 행위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 장관은 중앙정부에 보고
6.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가 관련 법률 제정**하고 이를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속문서 3에 추가하여 홍콩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
7. 이번 결정은 공포일부터 시행

‘장시성-광둥성 운하’건설 계획을 ‘14·5계획(2021년~2025년)’ 기간 종합교통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운하가 완공되면, 중국 중부지역과 ‘징진지’, ‘창장삼각주’, ‘웨강아오대만구’ 지역을 수운으로 연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¹⁶⁾. 이밖에도 다수의 전인대 대표, 정협 위원들도 ‘웨강아오대만구’ 지역의 물류체계 개선을 건의했다.

4) ‘홍콩 보안법’ 제정, 향후 홍콩의 물류허브 지위에 타격 예상

앞서 많은 ‘웨강아오대만구’ 관련 인사들이 동 지역의 물류체계 개선을 피력했지만, ‘웨강아오대만구’의 발전에 영향을 줄 중요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 전인대의 폐막일에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법 및 집행기제 제정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결정(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建立健全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制度和執行機制的決定)」(이하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었다.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자, 미국 행정부는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며, 향후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홍콩은 중국, 특히 남중국으로 통하는 무역, 금융, 물류의 중계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¹⁷⁾, 홍콩이 금융과 무역 허브로서의 이점이 사라질 경우 홍콩을 통해 재수출 또는 재수입되는 물량이 감소되고, 이 물량은 결국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 되어야 하므로 해운·항만·물류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홍콩이 ‘웨강아오대만구’의 물류구도에서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바, 지역 물류구도의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과 자무구의 확대 전망

홍콩의 기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서, 홍콩을 대체할 만한 ‘자유지역’의 존재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중 하나로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손꼽힌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하이난다오의 자유무역항 건설 추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양회’가 종료된 직후 6월 1일, 중국 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이하 ‘총체방안’)을 발표하며,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공식화했다. 「총체방안」에서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가공한 부가가치가 30% 이상인 화물에 대해 중국 ‘본토’로 들어오는 경우, 수입관세를 면제”, “환적화물의 세관수속 간략화”, “선박국적에 대한 특수관리정책 추진” 등을 포함한 39개의 다양한 조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하이난이 중국의 새로운 해운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¹⁸⁾.

16) 中国新闻网, “人大代表建言建设“赣粤运河”联通长江与珠江水系”, 2020.5.25.

17) 홍콩은 총수입 중 89%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 거점으로, 이중 50%가 중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홍콩으로 수출되는 제품(281억달러)의 114%(321억달러)가 재수출 되며, 이중 98%가 중국으로 재수출 됨. 재수출 비용이 100%를 초과하는 이유는 수출액 계산시 하역료, 보관비용, 중계수수료 등 중개업자가 요구하는 마크업(mark-up)비용이 수입액에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홍콩보안법 관련 미증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2020.5.28. No. 9.

18) 국무원 등, 「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 2020.6.1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9년 중국 운송수단별 화물운송량
- ▶ 이슈 포커스 : 2020년 특별한 '양회'의 눈길가는 해양수산 이슈들
- ▶ 동향 & 뉴스

■ 전인대 대표, 샤오성펑(肖盛峰)



“다롄은 자유무역항 건설에 있어 다섯 가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음. 첫째, 다롄은 북서 태평양의 중심이자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함. 둘째, 항만 통합이 완료됨. 셋째, 항만 해운 환경이 우수함. 넷째, 대외 개방 체계가 완벽함. 다섯째, 무역 기반이 튼튼함”
(사진 출처 : <http://news.sina.com.cn/c/2014-12-29/203231341183.shtml>)

■ 정협 위원, 후커이(胡可一)



“크루즈 운영 재개를 위하여 크루즈의 ‘공해 상 운항’ 항로를 개척하고 조건이 허락한다면 중국 크루즈 선사가 중국-타이완, 중국-한국 항로를 재개할 필요가 있음”
(사진 출처 : http://www.ship.sh/news_detail.php?id=15215)

기타 지역의 ‘자유무역항’ 건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인대 대표인 다롄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샤오성펑(肖盛峰) 주임은 다롄을 ‘자유무역항’으로 건설할 것을 건의했으며¹⁹⁾, 정협 위원인 후커이(胡可一) 의원은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환발해지역 및 기타 ‘일대일로’의 중점 연계도시에 ‘자유무역항’ 건설을 건의했다²⁰⁾.

뿐만 아니라,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중서부지역의 자유무역시범구와 종합보세구 증설”도 언급함에 따라, 향후 자유무역항, 자유무역시범구 등 특별 경제구역들의 확대가 예상된다. 기존 자유무역시범구의 개혁 심화도 기대되는데, ‘양회’가 끝난 직후 상하이 해사국 등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 속해 있는 양산(洋山)항에 대해 「양산 특수종합보세구역 대외개방과 혁신발전 촉진을 위한 약간의 의견」 및 「양산 특수종합보세구산업 발전 및 공간배치 계획」을 발표했는데, 양산항에서 환적화물 혼재(콘솔리테이션) 업무 등에 대한 인센티브 등 88개의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양산항을 국제 환적항으로 한 수출입 컨테이너 ‘샤오파이’ 개방 검토가 거론되고 있으며, 구역 내 기업들이 양산항을 국제 환적항으로 하여 ‘샤오파이’ 업무를 진행할 시, 물동량에 따라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²¹⁾.

6) 크루즈 활성화 관련 논의도 활발, 한국항로 재개도 제안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업종이 큰 어려움이 겪는 가운데, 관광업, 특히 크루즈 관련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올해 ‘양회’에서는 크루즈 발전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정협 위원이자 중국선박그룹 산하 장난조선소(江南造船) 주임인 후커이(胡可一)는 크루즈산업에 대하여 ‘정층 계획(顶层规划, 상층부에서의 정책 설계)’을 통해 국가전략 승격을 제안했다. 후커이 의원은 코로나19로 크루즈업이 어려움에 직면한 이 때 관광객들에 크루즈관광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며, 크루즈 운영 재개를 위하여 크루즈의 ‘공해 상 운항’ 항로를 개척하고, 조건이 허락한다면 중국 크루즈 선사가 중국-타이완, 중국-한국 항로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²²⁾. 또한, 앞서 ‘샤오파이’ 업무 개방을 제시했던 전인대의 쉬첸취 대표 역시 중국내 크루즈 운영 재개 및 국제 크루즈산업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코로나 상시 방역 상태에서의 크루즈산업 발전 회복」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올해 ‘양회’에서는 ‘교통강국’ 건설²³⁾ 관련 의견 및 선원육성 강화 등 해운·항만·물류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앞으로도 많은 관련 정책들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19) 港口圈, “人大代表肖盛峰: 支持大连以辽宁港口整合为契机建设自由贸易港”, 2020.5.25.

20) 新浪网, “全国政协委员骆沙鸣: 加快中国特色自贸港建设 服务‘一带一路’倡议”, 2020.5.25.

21) 澎湃新闻, “洋山特殊综保区88条: 大宗商品交易企业每年最高奖6千万元”, 2020. 6. 3.

22) 中国船舶报, “全国政协委员胡可一: 审视根本性问题, 推动邮轮业高质量发展”, 2020.5.21.

23) 2019년 9월,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교통강국건설 요강」을 발표하며,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2017년 10월 개최)에서 발표된 ‘교통강국(交通强国) 건설’의 이념을 구체화함.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9년 중국 운송수단별 화물운송량
- ▶ 이슈 포커스 : 2020년 특별한 '양회'의 눈길가는 해양수산 이슈들
- ▶ 동향 & 뉴스

■ 전인대 대표, Ningling(宁陵)



“연해 지방정부의 관계자, 해양경제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국가 연해 경제벨트 계획 영도소조(领导小组)’를 구성하여, 각 연해지역이 협력에 참여하는 매커니즘을 수립하고 ‘전국 연해 경제벨트 계획’을 제정해야 함”

(사진 출처 : http://news.southcn.com/gd/content/2020-05/19/content_190921284.htm)

■ 전인대 대표, 루완메이(陆銮眉)



“플라스틱 금지 전문법의 수립을 추진하고, 비닐봉지의 생산, 판매와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시민과 기업의 녹색 소비를 장려해야 함”

(사진 출처 : <http://mini.eastday.com/a/200602145434780.html>)

3 해양·수산분야 주요 내용

1) 지역 일체화를 통한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 촉진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예년과 같이 올해 임무 중 지역발전 촉진 전략의 일환으로 ‘해양경제 발전’이 언급되었다. 해양경제의 발전에 관해서도 전인대, 정협 위원들이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다. 먼저, 전인대 대표인 Ningling(宁陵) 중국 광둥해양대학교 부총장은 정부에서 전국 연해 경제벨트를 통합 계획하여 북에서 남쪽으로의 연속성이 있는 통합된 해양경제벨트를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²⁴⁾. 또한, 중국 소수정당 중 하나인 중국민주동맹은 환보하이 지역은 교통 인프라 시설 낙후, 지역 자원 환경의 과부 수용 및 지역 산업구조 유사 등 문제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환보하이지역의 고품질 일체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5가지를 건의했는데, ‘베이징-톈진-쑹안’을 핵심으로 징진지 세계급 만구(湾区) 도시군을 구축하고 산둥반도 도시군과 라오닝 중남지역 도시군의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⁵⁾.

2) 해양생태 환경 보호 지속 강화 의견 제안

환경문제 역시 최근 ‘양회’의 단골 소재이다. 상술한 전인대의 Ningling(宁陵) 대표는 국가 해양생태안전지수를 만들어서 해양생태 안전의 함의를 기반으로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해양경제 활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며²⁶⁾, 소수정당인 농공민주당은 해양환경오염 방제 강화, 해양생물 다양성 보호, 해양자원에 대한 질서 있는 개발 및 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생태환경 보호 전략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같은 소수정당 중 하나인 구삼학사(九三学社)는 바다매립 등 인류활동의 영향으로 인해 홍수림 등 자원들이 심각하게 파괴되었으므로 위해 홍수림, 산호초, 해초지 등 생태시스템을 위한 법률법규를 조속히 제정하여 해양생태환경 보호제도의 시행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인대 대표인 루완메이(陆銮眉) 민남사범대학교 바이오과학기술대학 교수는 최근 세계적으로 민감한 미세 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하여,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 방제 강화에 관한 대책 건의’를 제출했는데, ‘외국 쓰레기 수입의 전면적 금지’ 정책의 시행, ‘플라스틱 금지’ 전문법의 수립, 비닐봉지의 생산, 판매와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²⁷⁾.

3) 해양 카본싱크(Carbon Sink) 산업 발전 촉진 제안²⁸⁾

생태환경 보고와 관련하여 해양 ‘카본 싱크(이산화탄소 흡수계)’에 대한 개념

24) 南方网, “广东副省长: 打破行政区局限 规划沿海经济带”, 2020. 5. 19.

25) 观沧海, “如何发展蓝色经济, 他们这么说”, 2020. 5. 29.

26) 南方网, “广东副省长: 打破行政区局限 规划沿海经济带”, 2020. 5. 19.

27) 中国环境网, “两会代表针对海洋生态环境保护建言献策 建立制度体系守护碧海银滩”, 2020. 5. 29.

28) 莫照兰, “建议加快推动海藻碳汇产业的发展”, 2020.5.25.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9년 중국 운송수단별 화물운송량
- ▶ 이슈 포커스 : 2020년 특별한 '양회'의 눈길가는 해양수산 이슈들
- ▶ 동향 & 뉴스

■ 전인대 대표, 모자오란(莫照兰)



“카본싱크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사회경제의 고품질 발전 추진 및 생태문명 건설 등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따라서 해양 카본싱크 표준체계의 수립 및 해양 카본싱크 기술과 능력 제고를 빠르게 추진해야 함”

(사진 출처 : https://www.sohu.com/a/299562454_726570)

■ 정협 위원, 허윈아오(贺云翱)



“육·해 합동을 강화하여 내륙지역의 해양의식 교육과 문화건설에 대한 투입을 확대해야 하며, 해양 박물관, 해양과학 교육기지 등의 건설을 통해 내륙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해양에 다가가고 알아가는 기회를 가져야 함”

(사진 출처 : <https://news.artron.net/20200528/n1077988.html>)

도 ‘양회’에서 논의되었다. 전인대 대표인 모자오란(莫照兰) 중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카본싱크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사회경제의 고품질 발전 추진 및 생태문명 건설 등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따라서 해양 카본싱크 표준체계의 수립 및 해양 카본싱크 기술과 능력 제고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자오란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가장 큰 해조 배양산업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해조 배양 생산량의 선종(鲜重)은 1,500만 톤, 간종(干重)은 234만 톤에 달했으며, 총생산액은 580억 위안에 달한다. 해조는 중국의 바이오의약, 해수 동물 양식, 해조식품공업 등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해수로부터 73.36톤 탄소, 8.64톤 질소, 0.96만 톤을 감축시켰다. 이를 통해 취업안정, 탈빈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및 해양생태복원 등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해양 카본싱크의 표준 미비, 거래규칙도 미비로 해양 카본싱크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못함에 따라, 해양 카본싱크의 표준체계와 거래규칙의 수립, 해양 카본싱크 거래시장 구축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공유했다.

4) 해양의식 교육 강화를 통한 국민 해양의식 제고²⁹⁾

과거 조사된 「국민 해양의식 발전 지수 연구보고(2017)」에 따르면, 중국 전국범위에서의 해양의식 수준은 내륙지역은 연해지역보다 많이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양회’에서는 해양의식 교육에 대한 강화 내용들도 다수 제시되었다. 정협 위원인 허윈아오(贺云翱) 난징대학교 교수는 현재 중국 전 국민의 해양의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는데, 이는 중국의 해양발전 상황과 맞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전 국민의 해양의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역의 전체 발전전략이나 계획과 연계시키면서, 각 기관 간의 합동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정부·산업·학교·연구기관’ 사위일체(四位一体)의 해양의식 교육과 문화건설 발전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왕원롄(王训练) 중국 지질대학교 전(前) 부총장은 해양의식 교육을 강화하는 데 청소년은 가장 핵심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청소년 해양의식 교육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제정하고 해양관련 과목을 각 학습 단계의 필수과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협의 허윈아오(贺云翱) 위원은 해양의식 교육은 전국가 범위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고, 연해지역에만 제한하면 안 된다고 역설하며, 내륙지역에 해양박물관, 해양과학 교육기지 등의 건설을 통해 내륙지역 주민들이 해양에 다가가고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협의 뤼샤밍(骆沙鸣) 위원도 새로운 미디어 수단으로 해양의식 교육과 문화건설을 강화해야 하며, 재미있는 해양홍보교육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해양의식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 观沧海, “多名政协委员为加强海洋意识教育建言献策”, 2020. 5. 22.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9년 중국 운송수단별 화물운송량
- ▶ 이슈 포커스 : 2020년 특별한 '양회'의 눈길가는 해양수산 이슈들
- ▶ 동향 & 뉴스

■ 전인대 대표, 인펑(印萍)



“해양과학기술 성과의 상업화 전환 능력이 여전히 혁신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산·학·연 협력 과정에서 협력 대상을 찾기 어렵고 최종적인 성과전환 어렵다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 혁신의 운용 메커니즘이 미비되어 있고 연구자와 자금투입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임”
(사진 출처 : <http://news.cjn.cn/tfsj/201906/16438/20190313364592.htm>)

■ 전인대 대표, 란핑용(兰平勇)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품종 업그레이드 가속하고 우수 종자의 보급을 추진하며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고급 양질 수산물을 개발하고 품종 및 구조 다양화, 고품질의 생산 구조를 구축해야 함”
(사진 출처 : <http://www.fjrd.gov.cn/c/10-160007>)

5) 해양과학분야 기초연구 강화 및 기술제도 개선 추진 필요³⁰⁾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의 지원능력 제고’를 언급했는데, 현재 중국 해양과학기술 혁신은 ‘양적 축적’ 단계에서 ‘질적 돌파’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만홍(沈满洪) Ningbo대학교 총장 겸 전인대 대표는 해양과학의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하고 해양인재 육성 등 관련 정책을 실시를 건의하며, 시장수요에 따라 해양과학기술 성과의 상업화 전환 체제를 개선하여 기업을 주체로 하는 해양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인대 대표인 인펑(印萍) 중국 자연자원부 해양 지질연구소 부수석 엔지니어는 중국의 해양과학기술 혁신능력이 향상되고 있지만, 해양과학기술 성과의 상업화 전환 능력이 여전히 혁신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산·학·연 협력 과정에서 협력 대상을 찾기 어렵고 최종적인 성과전환 어렵다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 혁신의 운용 메커니즘이 미비되어 있고 연구자와 자금투입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상웨이(蒋兴伟) 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 원사(院士) 역시 해양과학기술 혁신능력을 발휘시키기 위해 해양 과학기술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야만 기술 분야 제도의 장벽을 없애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

6) 심해·녹색양식, 자동화를 통한 양식업 발전 추진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농민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수산양식업 발전을 제시했는데, ‘양회’ 기간 중 정협 위원인 마이캉선(麦康森) 위원은 심해양식 발전을 제안하였으며, 전인대 대표인 푸저우 홍동(宏东)어업주식회사 란핑용(兰平勇) 회장은 녹색양식 발전을 제안했다. 마이캉선 위원은 산둥성 해양기술혁신을 통한 심해양식 발전 추진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심해 양식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으며³¹⁾, 란핑용 회장은 녹색양식 발전 및 수산물 품종 구조조정을 통하여 양식제품 품질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³²⁾.

전인대의 모자오란(莫照兰) 대표는 해양목장의 정보화 및 자동화 건설을 통해 해양어업 생산 및 관리 현대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모자오란 교수는 해양목장 정보화 및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해 자원 통합하고 ‘정충설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으며, 중국 각 해역의 환경, 자원, 기후, 리스크 및 경제 발전 현황에 따라 현지의 스마트 해양목장 건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현지 해양 정보화 산업발전을 추진하면서 특색이 있는 발전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³⁾.

30) 观沧海, “两会代表委员为海洋科技创新代言”, 2020. 5. 27.

31) 齐鲁网, “全国政协委员麦康森: 不断探索技术革新 引领国际海水养殖发展方向”, 2020.5.22.

32) 兰平勇, “发展绿色养殖 注重水产品结构调整和产品质量的提高”, 2020.5.27.

33) 莫照兰, “建议加快推进海洋牧场信息化与自动化建设”. 2020.5.25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9년 중국 운송수단별 화물운송량
- ▶ 이슈 포커스 : 2020년 특별한 '양회'의 눈길가는 해양수산 이슈들
- ▶ 동향 & 뉴스

■ 전인대 대표, 린화중(林华忠)



“연해 모래 불법 채취가 심각하여 해당 구역의 어류가 서식 못하고 해양생태가 파괴되며 어민의 생산 및 생활이 보장되지 못함. 따라서 국무원에서 전문 법률 집행 기관을 구성하여 단속을 강화하여 해양생태를 보호해야 함”

(사진 출처 :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7559787)

■ 전인대 대표, 왕톈(王填)



“신선제품 공급사슬 업스트림의 조직화, 규모화, 상품화, 표준화를 위해 농장에서 수확된 제품의 냉장, 분류·선별, 표준화 가공 및 물류 시설의 건설을 추진해야 함”

(사진 출처 : <http://www.kaxian.tv/gd/2017/0315/727595.html>)

7) 어자원 보호,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중국 정부는 고갈되는 연해 어자원을 보고하기 위해, 어선 감축, 휴어기 제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도 여러 대표와 위원들이 이러한 정책 기조에 뜻을 같이했다. 전인대의 란평용(兰平勇) 대표는 어업자원 개발이용 부담을 줄이고 해양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어업법(渔业法)」 수정 촉진에 대한 ‘의안’을 발의했으며, 「어업법」은 첫째, 현재 내륙 및 근해 갯벌의 양식 기능을 가진 수역 면적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어업 수역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둘째, 어획 할당량 제도는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획 감독·관리 수준을 향상해야 하며, 셋째, 어업 자원 보호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³⁴⁾. 중국 전인대 대표이자 동산현 아오자오촌(东山县澳角村) 린화중(林华忠) 서기는 모래 불법 채취 단속 강화 및 여름 휴어제도 보완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전인대의 란평용 및 샤용상(夏永祥) 대표는 공동으로 근해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원양어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국제어업 자원개발, 선원 육성, 외국인 선원 관리, 원양어업 감독·관리 능력 향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 수산물 유통과정의 개선 필요

수산물 유통 관련 의견들도 다수 제시되었다. 전인대 귀샤오옌(郭晓燕) 대표는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기농 비료를 보급시키고 농업, 축산업, 어업생산의 QR코드 정보 추적관리를 실시를 건의했으며³⁵⁾, 부부가오(步步高) 회사 회장인 왕톈(王填) 전인대 대표는 농산물 유통절차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신선·활 수산물 및 과일까지 확대시키자고 건의했다. 왕톈 대표에 따르면, 현재 농업 및 양식업 발전을 위해 중국 정부는 농산물 유통 부가가치세에 관련 세수 정책을 발표했고, 채소 및 일부 신선 육류·알 제품의 유통과정에서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는데 신선·활 수산물 및 과일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여전히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산물시장과 연결되고 신선제품 생산·판매 안정한 공급관계가 구축되는 생산기지, 합작사(협동조합), 체인 슈퍼마켓 기업 및 공동구매(joint buying) 기구에 대해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4 2020년 중국 ‘양회’의 시사점

코로나19의 여파 속에 두 달 이상 늦게 개막된 올해 ‘양회’의 최대 중점 사항은 민생 안정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고용 안정과

34) 水产养殖网, “加快修订《渔业法》促进现代渔业可持续发展”, 2020.5.25.

35) 御城雪, “人大代表为水产渔业发声: 建议扩大农产品的免税范围”, 2020.5.25.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9년 중국 운송수단별 화물운송량
- ▶ 이슈 포커스 : 2020년 특별한 '양회'의 눈길가는 해양수산 이슈들
- ▶ 동향 & 뉴스

이를 위한 재정확대 정책과 기업지원 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 정부의 사회보험료 감면, 부가가치세 감면, 융자 확대 등의 지원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류업계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민항(民航) 발전기금, 항만건설비 감면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 조치들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행되고 있는 기업지원 조치 외에도, 향후 추가적인 지원 조치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련 기관 등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용을 도와야 한다.

‘양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확인하였듯이 현재 중국 정부는 고용 안정과 창출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빈곤 구제 역시 주요한 정책 방향이다. 이에 따라 향후 빈곤구제를 위한 인프라 개선 및 주민 생활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 어촌에서의 소득창출에 대한 고민과 함께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농간의 교통인프라 개선, 농수산물식품 콜드체인물류의 발전 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어, 주요 농수산물 거점 지역에 콜드체인 관련 물류인프라 투자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양회’에서 통과된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 미국의 대 홍콩 제재가 발동될 경우, 홍콩을 중계 무역기지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홍콩은 남중국으로 통하는 물류 허브로서 다수의 우리나라 물류기업과 선사들이 홍콩에 진출해 있다. 대 홍콩 제재 시 홍콩을 활용한 물류사슬의 단절이 우려되며,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은 이에 대해 대체 물류채널 확보, 물류비 상승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

올해 ‘양회’에서 상하이항과 칭다오항을 중심으로 한 전인대 대표들의 ‘샤오다이’ 업무의 외국적 선사에 대한 개방 건의가 이어졌으며, 중국 교통운수부에서도 이미 ‘샤오파이’ 업무 개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일부 항만(상하이 양산항 등)에서는 가시화될 공산이 크다. ‘샤오파이’ 업무를 외국적 선사에도 개방할 시, 우리나라 항만, 특히 북중국의 환적화물 비율이 높은 부산항은 일정 수준의 영향이 전망되는데, 이에 따른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도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단, 항만뿐만 아니라 한중 간 운송을 하는 근해 선사와 카페리 선사, 중국 다수 항만에 기항하는 인트라아시아 운송 선사와 원양선사, 그리고 물류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침에 따라, 각 유형 선사, 물류기업 별로 영향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조속히 요구된다.

코로나19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며, 특히 인프라 관련된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업무보고」에도 언급되었듯이 ‘신형 인프라’가 중국 인프라 투자의 핵심인 바, 5G, 빅데이터, AI, 무인자동차 등 투자 및 발전 상황, 정책 지원 등을 모니터링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비활성화된 부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항만의 자동화, 스마트 양식장, 각종 해양수산 분야의 빅데이터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9년 중국 운송수단별 화물운송량
- ▶ 이슈 포커스 : 2020년 특별한 '양회'의 눈길가는 해양수산 이슈들
- ▶ 동향 & 뉴스

활용 등 해양수산 분야를 둘러싼 '신형 인프라' 구축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요구되며, 관련된 기술교류, 공동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항은 올해 '양회'를 기점으로 가시화된 실질적인 정책 조치 중 하나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설립됨에 따라, 대상지역에 대한 분석과 자유무역항의 개방수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공항만 배후단지 등 유사지역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점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회' 기간 여러 지역의 자유무역시범구 신설 건의가 제시되었고, 「정부 업무보고」 자유무역시범구의 자주권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대폭 축소를 언급함에 따라, 기존 자유무역시범구의 제도 개혁이 촉진되고 진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무역시범구(자유무역항 포함)의 제도 개혁은 기업들에게 보다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바, 중국 진출 및 중국 내 타 지역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자유무역시범구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해양 분야에 대한 한중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중국은 '해양 강국'으로서의 일체화된 고품질 해양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 육성 등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해양과학기술 육성 등 유사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공동 연구 및 사례 정보 공유 등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회에서 제시된 해양환경 문제는 한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므로 한중간 학술교류, 과학기술계의 공동 연구 등 한-중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스마트 기술 활용한 수산업 양태에 관심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번 양회를 통하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심해양식 개발, 해양목장의 자동화, 녹색수산업 육성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증가된 비대면 접촉방식의 유통과 함께 식품안전 강화를 위하여 어업생산 QR코드를 통한 정보 추적관리 등을 실시가 제안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수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산업생태계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수산업 발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에 적용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항만 : 2019년 중국 운송수단별 화물운송량
- ▶ 이슈 포커스 : 2020년 특별한 '양회'의 눈길가는 해양수산 이슈들
-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해운 · 항만 · 물류

- [교통운수부, 「내하 항운 발전 개요」 발표](#)
- [교통운수부, 선원 일평균 600명 교체](#)
- [창장항무관리국, 22개 조치를 통해 해운·항만업체 생산재개 추진](#)
- [교통운수부 해사국 「수상 교통 안전 특별단속 3년 행동 실시방안」](#)
- [5월 하순, 컨테이너 및 주요 벌크화물의 물동량 회복세 선명\(5월 21일~5월 31일 코로나19 기간 항만생산 모니터링 및 분석\)](#)
- [국무원, <물류원가 진일보 절감에 관한 실시 의견> 발표](#)
- [상하이 양산 특수보세구 88조 조항 발표, 중점물자 교역기업 매년 최대 6천만 위안 지원](#)
- [하이난 자유무역항 설립, 현재 자무구와의 차이점](#)
- [저우산해사국, 급유선 안전 및 오염 방지 특별단속 시행](#)
- [아시아 역내 정기항로 화물량 증가 전망](#)
- [중국 최초로 국제 LNG병커링 센터 선진\(深圳\)에서 정착](#)
- [하이난 자유무역항, 선박등록정책 본격 시행](#)
- [광광귀지\(广船国际\), 세계 가장 큰 친환경 호화 RO-RO선 건조 시작](#)
- [5월 중국 대외 수출 화물 무역액 1.46조 위안으로 동기대비 1.4% 성장](#)
- [타이창\(太倉\)항, 상하이와 1일 2편의 바지선 고속노선 개통, 창장삼각주 항만 일체화 발전에 일조](#)
- [샤먼항 항만건설비 면제정책 연말까지 연장, 3~5월 누계 면제액 6,158만 위안](#)
- [우한 양퓄항, 15일 연속 컨테이너물동량 2,000TEU 이상 기록](#)
- [르자오\(日照\)그룹, 100% 지분 무상으로 산동성항만그룹에 편입](#)
- [시장감독관리총국 위법적인 비용수취 근절, 항만물류는 감독관리의 중점 대상](#)
- [상무부, 올해 내에 중국 국제서비스무역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 제정 계획](#)

해양 · 수산

- [중국 생태환경부, 향후 해양 모니터링 업무 추진 방향 제시](#)
- [「2019년 중국 해양생태환경 상황 공보」 발표, 동해 해역 해양환경 상황 가장 우려됨](#)
- [모자오란\(莫昭兰\) 인민대표, 해조 카본싱크\(Carbon Sink\) 산업의 발전 촉진해야](#)
- [세계 해양의 날 : 홍수립 보호 관련 법제도 보완, 대표적인 해양생태계 복원](#)
- [「2019년 하이난성\(海南省\) 해양생태환경 상황 공보」 발표](#)
- [웨이하이시\(威海市\)와 북경대학교, 북경대학교 웨이하이해양연구원 공동 설립할 계획](#)
- [광둥성\(广东省\) 홍수립 총면적 약 1.4만 헥타르에 달해 전국 1위 차지](#)
- [샤먼시\(厦门市\) 2019년 해양생산총액 1,649.0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
- [선전시\(深圳市\), 해양 카본싱크 계량지침 편성에 관한 연구 가장 먼저 전개](#)
- [저장성\(浙江省\) 전역 '플라스틱 제로 도시' 건설 추진](#)

자세한 동향 내용은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중국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kmishanghai.org>)
<동향 분석> → <주요 뉴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파란색** 부분은 번역된 기사임.